

전제 조건

본 기준은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 환자가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injection)를 맞은 이후 7 일 이내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분류입니다. 사용된 스테로이드는 트리암시놀론 또는 메틸프레드니솔론 등의 제제로, 주된 목적은 관절 내 염증 완화와 통증 조절입니다.

1. Green (경과관찰 가능)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내와 생활 조절만으로 충분하며, 추가 의료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사 후 1~2 일간 경미한 통증이나 압통, 관절의 뻣뻣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흔한 국소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48 시간 이내 자연 호전됩니다.
- 약간의 관절 부종이나 발적이 있으나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국소 염증 flare 로 인한 일시적 반응일 수 있으며, NSAIDs 복용 및 냉찜질로 조절 가능합니다.
- 주사 이후 증상 변화가 없거나 경미한 개선만 보이는 경우: 약물 반응의 지연으로 인한 경과일 수 있으며, 이상 소견은 아닙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는 활동 제한, 냉찜질, 필요한 경우 NSAIDs 복용을 안내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경과를 관찰하면 됩니다.

2. Yellow (모니터링 필요)

즉각적인 응급 치료는 필요 없으나, 악화 가능성이 있어 경과 관찰 및 조건부 의료 개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주사 후 24 일이 지났음에도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거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비정상적인 flare 반응이 의심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35 일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통증이 주사 이전보다 다소 악화되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경우: 약효의 불완전 반응이나 관절 내 염증 잔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 미열(37.5°C 이하)이나 피로감 등의 경미한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 감염은 아닐 수 있으나 전신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환자가 불안, 불면,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의 신경정신계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상 기록, 1~2 일 내 재평가 권고, 필요 시 영상 검사나 내원 진료 예약을 권장하고, 환자에게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바로 병원에 연락하도록 교육합니다.

3. Red (응급 내원 권고)

명백한 이상반응 또는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 주사 부위에 발열, 붉은 발적,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관절 감염(PJI 또는 패혈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관절 천자, 배양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 38 도 이상의 고열, 오한, 전신 쇠약감이 동반된 경우: 전신 감염 또는 패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 주사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궤양, 악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국소 감염 또는 피하조직염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사 후 통증이 급속히 악화되고, 특히 야간에 지속되는 깊은 관절통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유발 골괴사(osteonecrosis)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조기 MRI 평가가 필요합니다.
- 호흡곤란, 두드러기, 흉부 압박감 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요구됩니다.
- 정신착란, 감정 기복, 불면이 지속되고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인 경우: 스테로이드 유발 정신과적 부작용이 의심되며 약물 조정 및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신속한 병원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해야 하며, 진료 시 영상, 혈액검사 및 필요 시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